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델파이연구

윤순덕 · 박공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Three-Round Delphi Study on the Value of Rural Residence in Later Life

Yoon, Soon Duck · Park Gong Ju

National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 In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value of rural residence in later life from the personal, regional, and nation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a three-round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collect data through a series of surveys to obtain the consensus of a group of 38 experts in value of rural residence in later life in the future. In the first round was sent to them unstructured questionnaire and in the second and third round, the summarized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round were delivered to rate the importance of each item for confirmation and validation of the results.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sonal, regional, and national value of rural residence in later life was selected 7 domains 23 items, 4 domains 22 items, and 3 domains 20 items respectively. Experts consented that the value from the personal perspective will be the highest among 3 perspectives. Second, as the value of rural residence from the personal perspective, it was showed nature-friendly life, physical health, emotional serenity, lower expenditure, enjoyable farming, feeding the safe food, and etc.. As the value of it from the regional perspective was showed usage of retirees' speciality and experience to community development and the increase of recreational function in the rural. Also, from the national perspective, it was showed the sustainability of the rural,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bas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Rural residence, Rural life, Value of the rural, Delphi method

1. 문제제기

우리나라 농촌은 그동안 주로 거시 통계자료에만 의존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의 노령화 수준이 높아 사회적 부양부담이 크고 도시와의 복지수준 격차가 커 삶의 질이 열악하다는 부정적인 모습만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부각되었고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물론 이러한 부각이나 관심은 농촌의 실정이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농촌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고 농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정책적 논의들은 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농촌지역의 복지여건을 개선할 것인가, 과

도한 농업노동과 낮은 소득수준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복지를 위한 정책은 주로 농업인 정책과 동일시함으로써 별개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은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남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농촌 복지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농촌 고령화는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기고 농촌 희생에 대하여 비관적인 진단들이 널리 퍼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김성훈, 2006)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농촌과 도시 지역간 복지 불균형 심화, 그리고 농촌 희생의 위기를 극복할 획기적인 전략,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식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Corresponding author : Yoon, Soon Duck

Tel : 031-299-0495

E-mail : ysd@rda.go.kr

서구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부터 농촌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도시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정책들을 실시하여 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많은 연구자들도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도시 은퇴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Judson, Reynolds-Scanlon, & Popoff, 1999, Warnes & Law, 1982), 지역사회에 은퇴자들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다양함을 분석함(Day & Barlett, 2000, Deller, 1995, Hodge, 1991, Joseph & Cloutier, 1991, Reeder, 1998)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은퇴자 유입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려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무엇보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에 정책입안자나 농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에서도 도시의 과밀화, 국민소득 향상, 그리고 가치관 전환 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년기가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은퇴 후 정착지(Retirement Destination)로서 농촌지역의 가능성이 새롭게 등장하고, 건강장수의 최적 환경, 노년기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원하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적절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주공간으로서 학문적, 정책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최근에는 예비 은퇴층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송미령, 성주인, 2006, 오세익, 2004, 윤순덕 등, 2005, 윤순덕, 박공주, 2006, 이광석, 1997)이 상당히 늘었다. 그러나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했을 때 또는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나 이주자들의 담론에 그치고 있을 뿐 다양한 가치나 효과에 대하여 연구된 바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주로 매스컴을 통하여 퇴직 후 농촌에 들어간 도시은퇴자가 농촌에서 생활해보니 이러한 점이 좋더라는 개인적인 견해가 선각자의 사례로서 소개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이 농촌 고령화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이 담론이나 개인적 취향으로 회자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밝혀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수사회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갖는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자 전문가 델파이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

치를 탐색해보고 이러한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노후 농촌생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 등을 밝히려는 이후 지속적인 작업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도시은퇴인구 유입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II. 선행연구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이나 가치가 학문적 영역에서 실증연구나 논의의 주제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형태의 특징이나 그 논의들에서 거론되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후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논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어지는데, 은퇴 후에 귀농을 하여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로서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 소개되는 형태, 농촌·농업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들의 식견으로서 학술모임 등에서 주장되어지는 형태, 그리고 연구자들의 학술적인 조사에 의해 노후 농촌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어지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논의형태는 주로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개인적으로 주는 의미와 가치를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은퇴 후 농촌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두 번째의 논의형태는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도시노인이 이주하여 생활하면 지역경제 발전이나 국가균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의 기대효과에 대한 예측 중심으로 기술되며 당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의 논의 형태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세 가지 논의형태들은 공통적으로 장수사회 새로운 대안적 삶의 형태이자 지역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의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에서 논의되는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의 견해가 공해가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도시환경과 비교하여 좋은 공기와 좋은 햇빛이 있고 경치가 좋다는 점을 들어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김영진, 2006, 나영진, 2006, 송학운, 2006, 윤순덕, 2005, 인병선, 2005)는 점을 들었다. 특히, 도시민이 휴양을 위해 농촌을 찾아 자연과 가까이 생활함으로써 농촌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성인병이나 질환을 극복하였거나 많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텃밭을 만들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트고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재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송학운, 2006) 또한 모든 환자들에게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푸른 채소를 가꾸는 농사일을 하라는 처방을 써주었다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황석중, 2004)의 발상과도 일치한다. 또한 육체적 질병은 많은 부분 긴장감과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농촌에서는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다보면 퇴직한 후에도 무료하지 않으면서 정서적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김영철, 2005)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대도시와 비교하여 생활비가 농촌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도시처럼 집값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김영진, 2006)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된다. 도시에서는 조그만 부식거리도 돈을 주고 사야 하나, 농촌에서는 작은 텃밭에서 힘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년 내내 부식을 조달함으로써(인병선, 2005)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은퇴 후 농촌이주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논의형태는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과연 지역이나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만큼 은퇴자의 농촌이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부터 지금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나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견해까지 견해 차이가 큰 부분이다. 그러나 잠재적 퇴직자의 농촌이주가 갖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효과는 매우 다양하며 클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정리하면, 인구분산에 따른 도시의 효율성 향상, 농촌의 활력과 공동화 방지, 도시은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 활성화에 활용, 지역사회에 새로운 정보 유입과 주민의 사회적 재교육화, 지방세수의 증가, 건전한 도농교류 촉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유상오, 2001, 김주숙, 2006).

마지막으로 생의 대부분을 농촌에서 살아온 현재의 농촌노인들이 농촌에서 생활함으로써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들이다. 우리나라 백세인 연구에서 이들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고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직업이 없는 사람의 그것보다 더 긴 것으로 밝혀지면서(박상철, 2002), 건강장수에 있어 농촌이 주는 환경적 요인과 일거리가 장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년기 농업노동의 참여가 남녀노인 모두의 고독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윤순덕, 한경혜, 2004)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노년기 농업노동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노인의 생계 및 의료복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순덕 등, 2005). 그런가하면 농촌지

역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오랜 유대관계망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고,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노인들의 고립을 막고 일상에 있어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한경혜 등, 2005)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조사에 앞서 가치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접근하는 데 있어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온 농촌노인이나 은퇴 후에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역사회나 국가적 측면 보다는 개인적 측면에 국한된 가치라든지 기존의 논의나 연구자의 농촌조사경험으로 보아 가치보다는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척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농촌주민이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누락된 항목 등으로 조사결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미래에 예측되는 노년기 농촌생활의 개인적, 지역사회,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명하기 위해 4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3차에 걸친 델파이방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 방법은 통계된 피드백이 제공된 수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루는데 유용한 의사결정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1. 전문가 패널 선정

델파이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적인 지식능력, 참여의 성실성, 참가자 수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농촌·농업·노인관련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학계, 연구, 실무, 단체, 방송·언론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야의 10년 이상 종사자로 하였다. 각 분야에 들어가는 대학교수의 경우 유관학회에서 이사 또는 임원이며 노인, 농촌노인, 농촌이주, 농촌생활 등에 대한 논문을 집필한 바가 있으며, 농경제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아동가족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들로 제한하였다. 연구기관 연구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귀농이나 농촌이주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농업인·농촌관련 민간단체의 간부, 농업·농촌에 대하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였거나 신문·잡지의 기획 기사를 보도한 경험이 있는 프로듀서나 기자, 농촌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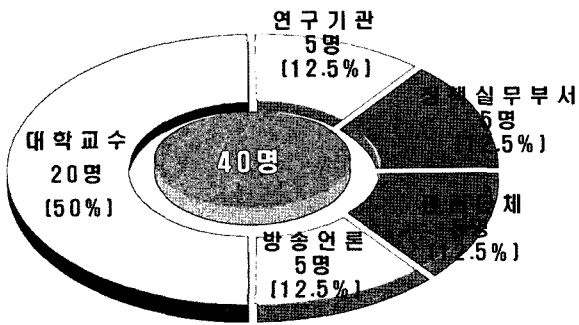


그림 1. 전문가 패널의 구성

도시민 농촌이주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급이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표본 집단의 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 Anderson(1997)에 의하면 표본크기는 7명에서 350명 이상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윤미숙, 200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의 표본크기는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가능한 인원인 40명으로 하고 앞에서 제시한 전문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40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전화로 본 델파이 연구에 대한 의의와 참여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얻었는데, 처음에 작성된 40명 모두가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대학교수 20명(50%), 연구기관 연구원 5명(12.5%), 관련 민간단체 간부 5명(12.5%),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 담당자 5명(12.5%), 방송언론분야 프로듀서와 기자 5명(12.5%)이다. 이 중 교수와 중앙·지방 업무담당자 각각 1명을 제외한 38명이 3차례에 걸친 본 델파이 연구에 참여하여 95%의 응답률을 보였다.

2. 단계별 조사 및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델파이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합의가 형성되는 것이 3차 설문에서이며, 1, 2, 3차로 반복되어감에 따라 회수율도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3라운드의 델파이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문가끼리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모든 전문가에게 일대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 설문지는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에 기술식 응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1차 설문지는 2005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 동안에 발송, 회수되었다. 1차에서 응답된 미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개인적, 지

역사회,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와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응답은 내용분석한 후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였다. 1차 설문결과와 내용분석은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리학 전공 석사졸업생 및 농업경제학 전공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과 연구자가 함께 코딩하였다.

2차 설문지는 1차 의견들에 대한 피드백을 위하여 1차 델파이 설문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가치항목과 가치 저해 항목의 빈도결과 제시와 ‘전혀 동의 안함’(1점)에서부터 ‘적극 동의함’(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추가하거나 통합, 분리되어야 할 항목이 있는지, 연구자가 부여한 코딩 범주 중에서 재명명 될 항목이 있는지, 혹은 재진술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써 전문가 패널과 함께 자료 분석의 범주 등을 검증하는 구성원 검토과정을 포함시켰다. 2차 설문지는 2005년 8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25일 동안 발송, 회수되었다. 2차 조사 자료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도출하였다. 평균이 동점일 경우는 표준편차가 적은 항목에 더 우선순위를 주었다.

3차 설문지는 2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항목의 평균값이 3점 미만이거나 전문가 2인 이상이 가치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항목은 삭제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의 집단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제시함으로써 응답자가 각 항목의 동의정도를 재평가하는 데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설문지는 2005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1일 동안 발송, 회수되었다. 3차 조사 자료도 2차 조사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평균값이 높고 표준편차 값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항목의 평균값이 3점 미만인 항목은 최종적인 미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SPSS/PC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단계별 가치 항목수의 변화

조사단계별 개인적, 지역사회, 국가적 가치 항목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차 조사에서 수집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개인, 지역사회, 국가적 가치에 대한 응답을 내용 분석하여 도출된 항목은 각각 77, 67, 79개이었다. 이 중에서 유사한 내용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1차적으로 도출된 항목수는 각각 25, 26, 27개이었고, 2차 조사에서 항목의 평균값이 3점 미만이거나 전문가 2인 이상이 가치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항

표 1. 단계별 가치 항목수의 변화

구분	단위: 항목			
	총응답	응답내용통합	2차 조사결과	3차 조사결과
개인	77	25	23	23
지역사회	67	26	22	22
국가	79	27	22	20

목은 삭제하여, 각각 23, 22, 22개가 되었다. 3차 조사결과에서 평균값이 3점 미만인 국가적 측면의 가치 2항목을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개인적, 지역사회, 국가적 가치항목 수는 각각 23, 22, 20개이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노년기 농촌생활의 개인적 가치

장래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개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로울 것인지 도출된 다양한 가치와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문가패널의 수가 작아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자에 의해 가치 항목들을 유사한 영역끼리 통합·분류한 결과, '자연친화적 삶과 건강', '여가농업과 건강', '경제적인 생활', '여유로운 생활',

'성공적 노후', '친밀한 관계 형성', '제2의 사회활동' 등 7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먼저, 응답자들의 가치 항목에 대한 합의정도를 표준편차의 변화로 살펴보면, 23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21개 항목에서 3차의 표준편차가 2차의 표준편차보다 감소하였고 나머지 2개 항목은 표준편차의 변화가 없거나 0.01 포인트 줄어들어 거의 대부분의 가치 항목에 대하여 합의가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경제적인 자립' 항목은 2차 조사에서보다 3차 조사에서 평균값이 0.42 포인트 상승하고 순위도 13순위에서 8순위로 동의하는 정도의 변화가 매우 컸던 반면, 23개 항목 중 '소일거리·노동을 통해 치매 예방' 등 4개 항목은 2차 조사에서보다 3차 조사에서 평균값이 떨어지고 그 중에서 3개 항목은 우선순위로 뒤로 밀려났다. 특히, '소일거리·노동을 통해 치매 예방' 항목은 2차 조사에서 평균 3.50점으로 9순위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평균 3.39점으로 13순위로 낮아져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한편, 도출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가치 23개 항목 중 3차 조사에서 평균이 4.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동의를 보인 항목은 총 7개 항목이었고 이 중에서 6개 항목은 자연친화적인 삶과 건강, 여가농업과 건

표 2. 개인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항목(≥3.0, 1~5점)

가치항목	2차 결과		3차 결과		
	Mean(S.D)	순위	Mean(S.D)	순위	
자연친화적 삶과 건강	1. 자연친화적 삶으로 정서적 평온·안정감	4.23(0.81)	3	4.42(0.64)	1
	2. 자연친화적 삶으로 육체적 건강유지	4.39(0.71)	1	4.42(0.72)	2
	3. 도심의 스트레스·환경오염 벗어난 자연친화적 삶	4.34(0.58)	2	4.34(0.58)	3
여가농업과 건강	4. 소일거리·노동을 통한 삶의 의욕, 활력 회복	4.07(0.78)	5	4.15(0.71)	5
	5.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의 향유	3.97(0.78)	6	4.13(0.66)	6
	6. 저강도 작업으로 신체적인 건강유지	3.73(1.17)	7	4.07(0.85)	7
	7. 무료함을 달래고 정신건강에 유익	3.60(1.07)	8	3.76(0.78)	8
	8. 노동참여로 경제활동 소외감 감소	3.39(0.85)	12	3.63(0.71)	10
	9. 소일거리·노동을 통해 치매 예방	3.50(0.97)	9	3.39(0.85)	13
경제적인 생활	10. 저렴한 주거비용과 농업으로 노후생활비 절감	4.13(0.74)	4	4.21(0.70)	4
	11. 농업활동으로 자식으로부터 경제적인 자립	3.34(0.96)	13	3.76(0.78)	8
	12. 저강도 생산종사로 일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	3.21(1.04)	16	3.34(0.84)	15
	13. 급격한 재산손실 예방	3.00(1.11)	23	3.05(0.80)	22
여유로운 생활	14. 정부농촌복지정책 및 사업 혜택	3.02(0.97)	21	3.02(0.71)	23
	15.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생활 향유	3.42(0.85)	10	3.55(0.79)	11
성공적 노후	16.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생활 영위	3.02(0.99)	22	3.10(0.76)	19
	17.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3.23(0.99)	15	3.36(0.67)	14
친밀한 관계형성	18. 목가적인 꿈의 성취	3.13(0.96)	18	3.23(0.91)	17
	19. 주변 이웃과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3.42(0.94)	11	3.42(0.82)	12
제2의 사회활동	20. 자식, 친구, 친지방문으로 교류 증가	3.10(0.95)	20	3.07(0.63)	20
	21. 제2의 직업능력 발휘 기회 증가	3.21(1.06)	17	3.23(0.81)	16
	22. 전문성·경륜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	3.28(1.06)	14	3.23(0.91)	17
	23.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3.13(1.09)	19	3.07(0.78)	21

강 부분에서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정서적 평온·안정감’(4.42점),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육체적 건강 유지’(4.42점), ‘도시의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서 벗어난 자연친화적인 삶’(4.34점), ‘저렴한 주거비용과 농업으로 노후생활비 절감’(4.21점),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의 향유’(4.13점), ‘저강도의 작업으로 신체적인 건강유지’(4.07점) 등이었다. 이 중에서 2차에서 평균 3.97점의 동의를 나타내었던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의 향유’는 3차에서 평균이 4.13점으로 높아지고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등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들 항목들은 대부분 은퇴 후 귀농자의 사례들에서 소개되었던 장점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개인적 측면에서 본 노년기 농촌생활의 주요 가치로는 자연친화적인 삶, 육체적 건강, 정서적 평온, 저소비 생활, 소일거리의 농업활동, 친환경 먹을거리의 향유 등으로 요약된다. 이외에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생활 향유’,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목가적인 꿈의 성취’ 등이 노후를 농촌에서 보낼 때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가치로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2. 노년기 농촌생활의 지역사회 가치

장래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지역사회 측면에서

어떤 점이 이로울 것인지 도출된 다양한 가치와 전문가들의 동의정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가치 항목에 비해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에 의해 가치 항목들을 유사한 영역끼리 통합·분류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 향상’, ‘인적자원 활용’, ‘지역사회 유지’ 등 4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먼저, 응답자들의 가치 항목에 대한 합의정도를 표준편차의 변화로 살펴보면, 22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제외한 19개 항목에서 3차의 표준편차가 2차의 표준편차보다 감소하여 거의 대부분의 가치 항목에 대하여 합의가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보다 3차 조사에서 평균값이 상승한 항목은 22개 항목 중 11항목(50%)이었으며 평균값이 낮아진 항목은 9항목, 동일한 항목은 2항목이었다. 특히, ‘도시은퇴자의 농촌생활로 농촌생활여건 개선’ 항목은 2차 조사에서 평균 3.65점으로 5순위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평균 3.50점으로 10순위로, ‘노인인력 활용, 전통문화 보존·발굴·계승’ 항목은 2차 조사에서 평균 3.34점으로 15순위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평균 3.23점으로 21순위로 낮아져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한편, 도출된 노년기 농촌생활의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가치 22개 항목 중 2차와 3차 조사에서 모두 평균이 4.0

표 3.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항목(≥3.0, 1~5점)

가치항목	2차 결과		3차 결과		
	Mean(S.D)	순위	Mean(S.D)	순위	
지역경제 활성화	1. 휴식·여가시설 수요증대로 휴양공간 가치 증가	3.97(0.78)	2	3.92(0.53)	2
	2. 빈집·폐교 등 기존시설의 재활용	3.64(0.71)	6	3.76(0.54)	3
	3. 경주·방문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3.76(0.71)	4	3.76(0.67)	4
	4. 문화, 여가 등 농업이외 연관산업 육성 및 발전	3.63(0.75)	8	3.73(0.64)	5
	5. 경제활동·소비에 기여, 지역경제순환에 기여	3.63(0.81)	9	3.68(0.73)	8
	6. 지역자원·자연환경의 관광상품화	3.36(0.71)	14	3.47(0.76)	13
	7.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자본 유입, 유치	3.34(0.90)	16	3.43(0.80)	15
	8. 실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31(0.90)	17	3.34(0.58)	17
	9. 도농간 직거래 증가로 지역 농가수입 증대	3.23(0.78)	21	3.23(0.67)	20
지역복지 향상	10. 인구유입으로 복지시설 확충되면서 복지향상	3.63(0.71)	7	3.71(0.65)	7
	11. 도시은퇴자의 농촌생활로 농촌생활여건 개선	3.65(0.74)	5	3.50(0.50)	10
	12.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현대적 복지시설 확충	3.52(0.64)	11	3.47(0.76)	13
	13. 의료, 교육 등 전문인력 유입	3.26(0.82)	20	3.35(0.75)	16
인적자원 활용	14. 도시은퇴자의 전문성·경험을 지역발전에 활용	4.02(0.71)	1	4.13(0.66)	1
	15. 다양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활성화	3.47(0.79)	12	3.52(0.55)	9
	16. 노인인력 활용, 전통문화 보존·발굴·계승	3.34(0.81)	15	3.23(0.88)	21
	17.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	3.18(0.89)	22	3.13(0.77)	22
지역사회 유지	18. 인구유입으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 완화	3.78(0.87)	3	3.73(0.82)	6
	19. 도시근교 농촌지역의 지속·유지	3.60(0.67)	10	3.47(0.60)	11
	20. 도시·농촌문화 혼합으로 문화생활 향상	3.43(0.72)	13	3.47(0.64)	12
	21. 도시·농촌간 괴리감 감소	3.31(0.98)	18	3.28(0.76)	18
	22. 지역주민과의 교류·유대로 공동체적 생유지	3.28(0.76)	19	3.26(0.60)	19

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동의를 보인 항목은 총 1개 항목 뿐이었는데, 인적자원 활용 부분의 ‘도시은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에 활용’(각각 4.02점, 4.13점) 항목이었다. 그 다음으로 평균이 4.0점 미만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았던 순서대로 살펴보면, ‘휴식·여가시설 수요 증대로 휴양공간 가치 증가’(3.92점), ‘빈집·폐교 등 기존시설의 재활용’(3.76점), ‘정주·방문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3.76점), ‘문화·여가 등 농업이외의 연관산업 육성 및 발전’(3.73점) 등이었다. 이와 같이 1순위를 제외한 2~5순위 항목들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노년기 농촌생활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가장 많이 예측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2차에서 평균 3.64점의 동의를 나타내었던 ‘빈집·폐교 등 기존시설의 재활용’은 3차에서 평균이 3.76점으로 높아지고 표준편차가 줄어드는 등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요약하면, 지역사회 측면에서 미래에 예측되는 노년기 농촌생활의 주요 가치로는 도시은퇴자의 전문성·경험을 지역발전에 활용, 농촌의 휴양공간가치 증가, 기존시설의 재활용, 정주·방문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이외의 연관 산업의 발전 등으로 요약된다.

3. 노년기 농촌생활의 국가적 가치

장래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국가적 측면에서 어떤 점이 이로울 것인지 도출된 가치와 전문가들의 동의정도

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가치 항목에 비해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에 의해 가치 항목들을 유사한 영역끼리 통합·분류한 결과, ‘국가균형발전’, ‘노인복지기반 구축’, ‘농촌사회 유지’ 등 3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먼저, 응답자들의 가치 항목에 대한 합의정도를 표준편차의 변화로 살펴보면, 20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제외한 19개 항목에서 3차의 표준편차가 2차의 표준편차보다 감소하여 거의 대부분의 가치 항목에 대하여 합의가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조사보다 3차 조사에서 평균값이 상승한 항목은 20개 항목 중 7항목(35%)이었으며 평균값이 낮아진 항목은 13항목(65%)이었다.

특히, ‘도시·농촌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항목은 2차 조사에서 평균 4.0점으로 1순위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평균 3.76점으로 5순위로, ‘도시 은퇴자 인력활용으로 농촌의 부족 노동력 공급’ 항목은 2차 조사에서 평균 3.26점으로 15순위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평균 3.02점으로 20순위로 낮아져 동의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한편, 도출된 노년기 농촌생활의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 20개 항목 중 3차 조사에서 평균이 4.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동의를 보인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순위로 살펴보면, 20개 항목 중 1~3순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도 증가’(3.94점), ‘농촌의 활용도 증대’(3.86점), ‘농업·농촌의 기능·역할에

표 4. 국가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항목(≥3.0, 1~5점)

가치항목	2차 결과		3차 결과		
	Mean(S.D)	순위	Mean(S.D)	순위	
농촌사회 유지	1. 농촌공간계획수립에 대한 요구도 증가	3.97(0.78)	2	3.94(0.51)	1
	2. 농촌의 활용도 증대	3.57(0.82)	6	3.86(0.47)	2
	3. 농업·농촌의 기능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	3.76(0.88)	4	3.86(0.74)	3
	4. 도시와 연계된 농촌의 특성화 유도	3.57(0.75)	5	3.60(0.71)	6
	5. 농촌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3.40(0.92)	11	3.28(0.86)	11
	6. 국민들의 건전한 정신과 가치관 함양	3.23(0.97)	16	3.27(0.87)	13
	7. 생활기반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 뚜렷	3.07(0.94)	20	3.05(0.86)	18
	8. 농촌경관, 환경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존	3.23(1.02)	17	3.07(0.78)	17
	9. 도시은퇴자 인력활용으로 농촌의 부족노동력 공급	3.26(0.94)	15	3.02(0.78)	20
국가 균형·발전	10. 도시농촌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4.00(0.77)	1	3.76(0.75)	5
	11. 인구분산으로 도시과밀화 및 농촌공동화 해소	3.57(0.97)	7	3.60(0.78)	7
	12. 전국토의 원활한 생활권유지	3.28(0.80)	14	3.26(0.72)	14
	13. 노인인구를 생산활동에 편입, 국가생산성 증대	3.15(0.88)	19	3.05(0.95)	19
노인복지 기반구축	14. 노인문제해결의 새로운 방안 마련	3.78(0.87)	3	3.84(0.78)	4
	15. 생산적 노인복지기반 구축	3.44(0.89)	10	3.50(0.83)	8
	16.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 안정	3.47(0.92)	8	3.36(0.71)	9
	17. 노년층 복지재정부담 및 비용 감소	3.36(1.17)	12	3.34(0.99)	10
	18. 농촌노인정책 전달기구 출현	3.47(0.92)	8	3.28(0.86)	11
	19. 국가정책의 수혜범위 증가	3.31(1.04)	13	3.23(0.81)	15
	20. 국가복지정책 운영에 편의 제공	3.21(0.84)	18	3.18(0.69)	16

표 5.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 저해요인(≥3.0, 1~5점)

요인 항목		2차 결과		3차 결과	
		Mean(S.D)	순위	Mean(S.D)	순위
복지정책 미흡	1. 복지기반시설 미흡	4.13(0.66)	2	4.21(0.70)	1
	2. 농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부재	3.97(0.78)	3	4.05(0.65)	3
이주유입 기반조성 미흡	3. 귀농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3.86(0.74)	4	3.78(0.87)	4
	4. 귀농사업에 대한 농촌주민의 자발적 참여부족	3.39(0.94)	11	3.60(0.82)	9
	5. 전문 인력의 농촌이주 장려 어려움	3.47(1.05)	8	3.63(0.88)	7
	6.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부족	3.60(0.85)	6	3.47(0.86)	12
	7. 경제력 있는 은퇴노인 겨냥한 주거시설 부족	3.39(1.07)	12	3.57(0.88)	10
	8. 노년기 건강한 노동의 전원생활 아이템 부족	3.42(1.05)	9	3.71(0.76)	5
지역사회 통합문제	9. 도시이주민, 농촌원주민간 위화감, 부조화	4.28(0.61)	1	4.15(0.67)	2
	10. 이주 노인들의 정서적 고립감	3.36(0.88)	13	3.36(0.81)	13
	11. 농촌사회 구성원이 되는 문제	3.26(0.86)	15	3.31(0.80)	14
기타	12. 농촌인구 노령화의 가속	3.55(0.82)	7	3.63(0.97)	7
	13. 도시근교 농촌과 오지농촌의 양극화 현상	3.07(1.07)	17	3.02(1.07)	17
	14. 농촌지역의 지가 상승	3.81(1.03)	5	3.71(0.76)	5
	15. 농업 자체의 경쟁력 약화	3.05(1.22)	18	3.00(0.98)	18
	16. 농촌 고유문화와 자연환경 훼손	3.13(0.93)	16	3.07(0.88)	16
	17. 농촌투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부족	3.31(1.14)	14	3.15(1.00)	15
	18. 노후자금의 불충분	3.42(1.08)	10	3.52(0.86)	11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3.86점) 등으로 모두 농촌사회 유지 부분에 해당하였다.

4.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 저해요인

그런가 하면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한 항목과 그들의 동의정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연구자에 의해 가치 저해요인 항목들을 유사한 영역끼리 통합·분류한 결과, '복지정책 미흡', '이주 유입 기반조성 미흡', '지역사회통합 문제', '기타' 등 4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기타를 제외한 3개 영역 중에는 '이주유입 기반조성 미흡'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복지정책 미흡'과 관련된 항목 수는 2개로 적었으나 18개 항목 중 2항목이 1, 3순위에 해당되어 전문가들의 합의가 매우 높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응답자들의 가치 저해요인 항목에 대한 합의정도를 표준편차의 변화로 살펴보면, 18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에서 3차의 표준편차가 2차의 표준편차보다 감소하여 3분의 2 이상의 저해요인 항목에 대하여 합의가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보다 3차 조사에서 평균값이 상승한 항목은 18개 항목 중 10항목(55.5%)이었으며 평균값이 낮아진 항목은 8항목(44.5%)이었다. 2차 조사결과와 3차 조사결과 사이에 '노년기 건강한 노동의 전원생활 아이템 부족' 항목이 2차 조사에서 3.42점으로 9순위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평균 3.71점으로 5순위로 높아져 동의정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합의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순위 변동은 없었다.

도출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 증진의 저해요인으로 18개 항목 중 3차 조사에서 평균이 4.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동의를 보인 항목은 3개 항목이었고, 이 중 2개 항목은 '복지정책 미흡' 영역에, 나머지 1개 항목은 '지역사회통합 문제' 영역에 해당하였다. 우선순위로 살펴보면, 18개 항목 중 1~3순위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복지기반시설 미흡'(4.21점), '도시이주민, 농촌원주민간 위화감, 부조화'(4.15점), '농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부재'(4.05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귀농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3.78점), '노년기 건강한 노동의 전원생활 아이템 부족'(3.71점) 등이었다. 농촌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가지는 다양한 자원과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저해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V. 맺는말

이 연구는 노년기 농촌생활의 장점이 담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래 노후를 농촌에서 생활함이 개인, 지역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이로울 것인지 그 미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 및 농업·농촌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단체 간부, 방송언론인, 정책실무부서 공무원 등 전문가 패널 38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에 의하여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 항목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는 지역사회나 국가적 측면에서보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더 다양하고 전문가들의 동의수준이 높은 방향으로 합의되었다. 둘째, 동의수준이 높았던 개인적 측면에서의 가치로는 ‘자연친화적인 삶, 육체적 건강, 정서적 평온, 저소비 생활, 소일거리의 농업활동, 친환경 먹을거리의 향유’ 등이었으며, 지역사회측면에서의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 향상, 인적자원 활용, 지역사회 유지’ 영역들이었고 ‘도시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발전에도 활용’ 항목이 가장 동의수준이 높았다.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로는 ‘농촌사회유지, 노인복지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 부분들의 항목이었는데, ‘농촌공간계획수립에 대한 요구도 증가, 농촌의 활용도 증가,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이 합의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복지정책 미흡’, ‘이주 유입 기반조성 미흡’, ‘지역사회통합 문제’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복지기반시설 미흡’, ‘도시이주민과 농촌원주민간 위화감 및 부조화’, ‘농촌지역 노인복지정책의 부재’ 항목들의 합의수준이 높았다. 농촌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가지는 다양한 자원과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저해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를 전문가 델파이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적, 지역사회,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예비 도시은퇴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농촌이주를 국가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서면에 의한 전문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빈도결과 이외에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제한적이었으며, 개별 가치항목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가치 항목들 간에 서로 의미가 중복된다든지, 지역사회 측면의 가치와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채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적 측면에서의 가치 항목들이 단일 차원이 아닌 복합적 개념의 항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농촌생활이 노년기에 주는 “건강”의 가치는 ‘자연친화적인 삶’ 또는 ‘적절한 노동’에서 얻을 수 있고 ‘노동’은 건강의 가치도 부여하지만 ‘안전한 먹을거리의 향유’나 ‘생활비 절약’의 가치도 부여하므로 단일차원으로 구성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복합개념의 항목을 그대로 살려 어떤 개념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므로 대단위 표본을 이용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후속으로 실시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국가적 측면에서의 가치 항목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지만, 노후 농촌생활의 가치와 정책적인 장려하는 개인, 유입지역,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치와 국가적 측면의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농촌사회) 유지’ 영역은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측면의 가치에서 중복되고 있으나 그 각각의 가치가 지역사회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가치임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다른 가치항목에 비해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유사한 항목이 지역사회 측면에서 또는 국가적 측면에서 더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향후 비교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에 의한 항목별 영역 분류가 적절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요인의 수가 영역의 수와 일치하고 연구자가 모든 요인에 대한 항목들의 의미있는 적재값을 계속 평가한 결과, 요인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현재 논문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항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 도출된 노년기 농촌생활의 가치항목을 조사도구로 활용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적 가치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유사한 항목끼리의 통합이나 가치 수준이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가치항목에서 제외하는 스크리닝 및 검증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가 전반적으로 실증연구가 아닌 전문가 델파이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문가들만’의 견해로 여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각각의 가치항목이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되어 실증적인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성훈, 2006, “장수시대의 도래와 인생의 이모작 설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집, 3-23
2. 김영진, 2006, “텃밭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가꾸며”,

-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집, 51-54
3. 김영철, 2005, “노인의 소일거리가 있는 은퇴농장”,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집, 81-91
 4. 김주숙, 2006, “도시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륜을 농촌 활성화의 핵심역량으로”,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집, 25-41
 5. 나영진, 2006, “당나귀와 함께 하는 건강한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집, 55-64
 6. 박상철, 2002, 『한국의 백세인』, 서울대학교출판부
 7. 송미령, 성주인, 2006,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2006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송학운, 2006, “자연식을 통한 건강한 삶”,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집, 65-73
 9. 오세익,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유상오, 2001, “도시 퇴직자 귀농에 의한 농촌 활성화 방안과 비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건강하고 보람되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심포지엄 자료집, 13-44
 11. 윤미숙, 2003, “비서의 현재 역량과 미래 역량에 대한 델파이 연구”, 비서학논총 12(2), 109-141
 12. 윤순덕, 2005, “은퇴 후 농촌에서 인생이모작”, 전원생활 2005년 2월호 : 90-91
 13. 윤순덕, 한경혜, 2004, “생산적 활동과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 57-77
 14.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 139-153
 15. 윤순덕, 박공주, 강경하, 2005, “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효과 분석”, 한국노년학 25(2) : 109-126
 16. 윤순덕, 박공주, 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지 12(2) : 37-47
 17. 이광석, 1997, “도시민의 휴가지 및 주거지로서의 농촌선택 성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38(1) : 35-46
 18. 인병선, 2005, “짚풀공예 활동과 노년기 건강관리”,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농촌진흥청 심포지엄 자료집, 15-26
 19.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5,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상호작용: 강원도 지역 3개 마을 사례연구”, 농촌사회 15(2) : 85-131
 20. 황석중, 2004, “도시의 녹지공간을 가꾸는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 『체재형 주말농장을 통한 도농녹색교류』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 도농녹색교류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4-17
 21. Deller, S. C., 1995, “Economic Impact of Retirement 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9(1): 25-38
 22. Recder, R. J., 1998, “Retiree-Attraction Policies for Rural Development”, Food and Rur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e Information Bulletin No. 741
 23. Hodge, G., 1991, “The economic Impact of Retirees on Smaller Communities: Concepts and Findings from three Canadian Studies”, Research on Aging 13(1) : 39-54
 24. Judson, D. H., Reynolds-Scanlon, S., & Popoff, C. L., 1999, “Migrants to Oregon in the 1990's: Working age, near-retirees, and retirees make different destination choices”, Rural Development Perspectives 14(2) : 24-3
 25. Warnes, A. M., & Law, C. M., 1982, “The destination decision in retirement migration”, In A. M. Warnes(Ed.).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the elderly(pp. 53-81), Chichester: Wiley